

## 눈물 너머의 희망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은 2010년 연합총회 이후 두 번째로 제27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우리가 150년의 역사와 여정을 기념하는 동시에, 여전히 새로움을 간직한 공동체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자리였습니다. 이 축하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었으며, 과거의 여정과 성취를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었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의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으로 이어지는 비전을 품었던 분들을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규범을 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환대하고 품었던 분들을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그 분들은 주변 세계의 필요를 보셨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신 동역자가 되셨으며, 그것이 실제로 싹트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이사야 43:18).

150년이라는 유구한 신앙의 증언과 창립 15년을 맞은 WCRC의 새로움이 맞닿아 있는 이 시점은, 신앙의 여정에서 세워진 역사적 이정표와 앞서 걸어가신 분들의 인내, 그리고 그분들이 극복하신 도전들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과거의 배움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간절한 외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실 미래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로마서 4:17).

### 세대를 위한 울부짖음

*"...우리가 이처럼 큰 증인들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나니..."*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진 울부짖음은 기쁨의 눈물이자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증언 속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영혼이 가장 빛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교회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마가복음 12:31)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이기도 합니다.

아크라 신앙고백에 담긴 개혁교회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평화를 향한 외침이며, 자유와 변화를 갈망하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재세례파 박해와 같이 개인과 공동체에 고통을 초래한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박해가 복음의 본질을 배신한 일이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니케아 신앙고백 1700주년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일치를 위해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 일치 사명(요한복음 17장)을 세워 가기 위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이 노력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짜신 아름다운 태피스트리처럼 전 세계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와 공동체에서 온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각자의 현실과 경험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차이를 기념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극복해야 할 도전

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참여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이 다양성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그들이 가져오는 지혜를 기뻐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곧 우리의 외침이며, 그들의 마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이상의 변화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이제 함께 교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세상 속 우리의 증언,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리더십과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는 여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증언은 흔들림이 없으며, 비록 그들의 온전한 존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축하합니다.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존재와 참여를 감사히 기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믿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잔혹함과 인간성 부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원주민 형제자매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이 땅과 강, 바다와 맺은 깊은 유대를 존중하며, 식민주의와 자연 자원의 약탈, 그리고 땅과 사람의 파괴에 맞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저항과 회복력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그들의 지혜로부터 계속 배워갑니다.

태국 그리스도교회의 따뜻한 환대와 인내, 그리고 신앙의 증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은 우리 전체 교제 공동체에 귀감이 되며, 진정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메노나이트 세계 회의와 공통의 신앙 기반 위에서 서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모습을 기쁨으로 축하합니다.

### **걱정근심을 고백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버리자”*

세상의 현실은 사랑과 자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세상 속의 여러 병폐가 남긴 상처는 사람과 공동체에 선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된 이 시대에, 제국의 유산과 존재는 한층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정의를 향한 추구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그 문제들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할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는 데 느끼는 피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 하는 우리의 열망에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함께 걸으며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부르심은 조건 없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신앙 전통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그 부르심을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 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앙 전통의 형제자매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는 교제 자체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교제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지 못할 때, 그 부재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어떤 이들은 꾸준히 참여하지 않는지, 왜 다른 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 고민하며, 모두가 교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기회를 가진 교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빠진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또한 모든 이를 식탁에 초대하여 빵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 **교제하는 삶으로의 부르심**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자,*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앞을 내다봅니다. 우리 앞에 선 개혁자들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서로에게 해야 할 헌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교제와 친교,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주어진 때입니다 (에스더 4:14).

함께함이 우선입니다. 모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능력을 키우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대화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며, 교제하는 이들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불확실한 시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과 다양성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서로에게서 배우기 위해서는 만나는 이들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소중하며, 문화적 역동성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형성하고 다듬습니다. 획일성을 요구하는 기대는, 다양성 속에서 드러나는 온전한 모습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공동체란 함께하며 정의를 추구하고, 성령의 풍성함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확보하게 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때에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WCRC는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의 영적 필요를 충족하며, 정의를 증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과의 연결과 성령 안에서의 삶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은 우리의 영성을 깊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갱신의 부르심은 할 일이 많은 이 시대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일은, 정의를 실천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필수적 연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기도를 포함한 영적 돌봄의 실천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언적 증언의 부르심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개혁되었고, 계속해서 개혁 중이며, 21세기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50년 전 개혁자들은 안락함을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과감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역시 불의가 정상화되고 용인되는 시대 속에서, 대안적 서사가 되기 위해 과감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는 여전히 파괴적이며 변혁적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주변 세상의 증가하는 필요를 해결하도록 부르는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선교는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선교 헌신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실천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포로에게 자유를, 억압받는 자에게 해방을, 상한 마음을 가진 자의 상처를 싸매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라는 부르심 또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듣고 목격한 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 모든 목소리가 포함되도록 우리의 통치와 구조를 탈식민화할 필요에 주의를 기울일 용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의 선물을 세심히 받아들일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꽃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확장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 기도와 교제 안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한 비전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시편 46:10)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될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요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모든 이가 양육받고 자유로운 미래, 교회가 제국의 권력으로 정상화된 고통을 해체하며, 현실 속에서 관련성 있게 활동하는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중심을 둔 이 교제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눈물을 넘어서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